

제목: "그래도 우리가 해야 할 일"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25절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던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바울을 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문제들을 뛰어 넘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부탁하신 일들을 감당하라고 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지나고 지나가는 상황 가운데 그래도 감당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몇 가지 깨닫게 됩니다.

- 1) \_\_\_\_\_의 도를 전해야 합니다.
- 2) \_\_\_\_\_의 방법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 3) 하나님께 \_\_\_\_\_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교회가 섬기는 선교지	
백남일 선교사	북아프리카, 프랑스 이슬람권 사역
Silk Wave 선교회	터어키 교회개척 및 목회자 사역
깊은 뿌리 나무 (Deep Roots Church)	한인 2세를 중심으로 개척 된 다민족 교회(뉴저지)

지난 주 헌금	
십일조	
주일	
합계	

오레곤 새로운 교회는

예수님을 만나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교회는 인생의 슬픔 끝 그리고

행복이 시작 시작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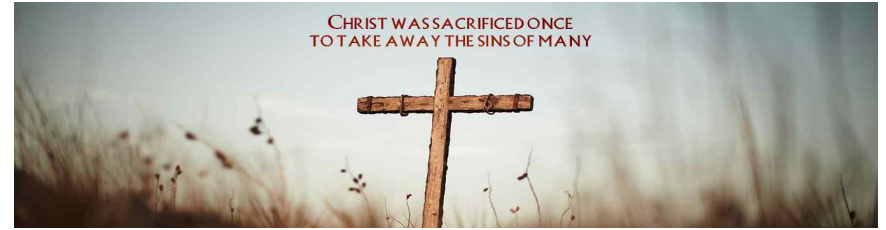
인생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행복한 인생과 영원한 삶을 위하여

성도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하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을 오레곤 새로운 교회로 초청합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  
"Let us Give a Brand New Heart to God" (2 Corinthians 5: 17)



주일예배 Sunday Worship Service

오후 12시 30분  
12: 30 PM

인도: 김성민 목사  
Prsider: Rev. Jason Kim

- \* 예배로의 부름 ..... 인도자  
Call to Worship Prsider
- \* 찬양 ..... 다 같이  
Praise All Together
- 예배를 위한 합심기도 ..... 다 같이  
Prayer All Together
- 성경말씀 ..... 고린도전서 1장 18-25절 ..... 설교자  
Scripture Reading 1 Corinthians 1: 18-25 신약 263 페이지 Prsider
- 말씀 ..... "그래도 우리가 해야 할 일" ..... 김성민 목사  
Message God's great command to this generation Rev. Kim
- 성찬식 ..... 다 같이  
Communion All Together
- 헌금/기도 ..... 다 같이  
Offering and Prayer All Together
- 광고/환영 ..... 인도자  
Announcement Prsider
- \* 찬양/헌신기도 ..... 주님 내가 여기있사오니 ..... 다 같이  
Praise and Prayer Lord Here I am All Together
- \* 축도 ..... 설교자  
Benediction Rev. Kim

오레곤 새로운교회 New Church of Oregon

(예배 장소) 3228 SW Sunset Blvd Portland OR 97239 (503)332-1941  
(St. Andrew's Presbyterian Church)

www.newchurchoregon.com newchurchoregon@gmail.com

담임: 김성민 목사 (Rev. Jason Kim, Senior Pastor)

## 담임목사 컬럼 (컴비네이션 Combination)

일을 할 때에 제일 하기 싫은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컴비네이션 (Combination)이라고 말하고 싶다. 값은 얼마 차이가 나지 않지만 손이 많이 가는 일이기 때문이다. 여기저기에 재료가 있어서 그만큼 많이 움직이고 재료도 많이 들어가는 일이다. 그래서 컴비네이션 오더(Order)가 들어오면 냉장고로 빠르게 가며 한숨을 크게 한 번 쉬고 시작한다. 그러다가 계속해서 컴비네이션 오더가 들어오면 몸은 점점 더 빨라지고 불평과 바쁨이 짝꿍이 하나가 되어 시간가는 줄 모른다.

한 번은 만일 내가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먹는다고 할 때에 가장 먹고 싶은 것이 무엇일지 생각해 보았다. 보나마나 컴비네이션 이었다. 이것도 먹고 저것도 맛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 일 것이다. 하지만 그들이 부엌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기나 할까?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그냥 다 된 것을 퍼주는 것으로 알지 모른다. 하지만 한 가지 한 가지를 처음부터 만들어 그릇에 담아내야 하는 일은 많은 노력과 열심을 필요로 한다. 그래서 그런지 얼마 전부터는 다른 음식점에 가도 이것저것 보다는 메뉴에 나와 있는 것 그대로 시키는 버릇이 생겼다. 요리사를 어렵게 하고 싶지 않아서다.

그러다가 얼마 전 "MOD Pizza"라는 피자집을 갔었다. 그 집은 이름 그대로 손님이 원하는 대로 피자를 만들어내는 집이었다. 계산대에 가기 전에 큰 테이블이 있어서 마음대로 이것저것을 피자 위에 올려놓고 구워내는 것이다. 내가 가장 싫어하는 것을 오히려 적극적으로 해 내는 음식점이었다. 작은 공간에 10명이 일을 하고 있었다. 전부 손님이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고 있었다. 한편으로는 한심하기도 하고 다른 한 편으로는 참으로 기발한 아이디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음식 하나를 만들어 내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된다. 인간은 간단한 치킨 테리야끼가 아니다. 하나님은 온갖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것으로 만들어 내셨다. 컴비네이션 중에 컴비네이션이라는 말이다. 그리고 한 번 구원 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도 관리하시고 계속해서 일하신다. 그러는 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녀 된 자들에게는 그 안에서 함께 하시며 뜨끈뜨끈 한 싱싱한 삶을 살도록 일하시고 만들고 계신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크신 사랑인가?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옵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시편 139편 13-14절)라는 시인의 고백을 통하여 다시 한 번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 나를 맛있고 멋있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이다.

나도 내일부터 한숨 짓는 컴비네이션이 아니라 멋진 컴비네이션을 만들어 내리라는 생각이 머리에 가득하게 된다.

## 교회소식

### 1. 환영합니다

오늘 오레곤 새로운교회 주일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마음껏 사랑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오랜 만에 함께 예배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자리를 마련하신 이석순 장로님 가정에 감사합니다.

### 2. 기도의 삶

#### 이번 주 기도제목

- 1) 성도들 모두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도록
- 2) 더욱 서로 사랑하여 한마음 되는 교회 되도록
- 3) 새로운 등록한 성도들이 믿음생활과 교회에 잘 정착하도록
- 4) 교육부 사역이 시작되도록
- 5) 건강 회복이 필요한 성도들을 위하여  
(김예식, 조영실 성도의 회복을 위하여)
- 6) 선교지를 도우며 열정적으로 전도하는 교회가 되도록
- 7) 모두 Covid-19을 통한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도록
- 8) 교회 비전에 맞는 찬양 사역자를 위하여
- 9) 우리교회를 통하여 다음 세대 교회가 세워지도록
- 10) St. Andrew's 교회 사역을 위하여

Deep Roots Church:	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백남일 선교사:	프랑스 Covid-19 에서의 온 가족 안전 특별히 사모님의 건강을 위하여
Silk Wave 선교회:	터어키 개신교 목회자들을 위하여
김인선 선교사:	니카라과의 사역을 위하여

### 3. 새벽 기도회

당분간 교회에서 다시 모일 때까지는 새벽 기도회가 없습니다.

### 4. 10월 생명의 삶

생명의 삶 10월호가 도착 했습니다. 한 권씩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 5. 친교

앞으로 당분간 예배 후 친교 준비는 교회에서 합니다. 개인적으로 부탁은 가능하겠지만 비용은 교회에서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 6. 교회 웹 사이트 주소와 이 메일 주소

웹 페이지 주소: [www.newchurchoregon.com](http://www.newchurchoregon.com)

이 메일 주소: [newchurchoregon@gmail.com](mailto:newchurchoregon@gmail.com)